

<지난주 말씀>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산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대언자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대변해줄 있는 대변자, 변호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 사람은 이런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나를 대변해줄 수 있는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대언자가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다시한번 여러분이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 그 대언자는 저와 여러분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마다 그 분은 나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죄 사함이 얻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잘못을 해도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놓기만 하면 대언자를 통해서 화목제물의 피가 나를 대언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범죄함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입니다. 그 자녀에게는 고후5:17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갈2: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신 그 분이 사는 삶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에게 준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에 담긴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미션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직 성령으로만 증언되어지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이것을 알고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에게 이 사실이 붙잡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망대를 세우고 이 여정을 걸어가고 이 이정표를 가지고 있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질문해 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한가? 그 질문과 답입니다. 내 인생을 두고 질문과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흐름 속에서, 시대 앞에서 질문과 답을 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질문과 답을 내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질문과 답을 내는 것입니다. 미래를 두고 후대 앞에서 질문과 답을 내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서 답을 내셔야 합니다. 교회 앞에서 정말 이런

계약을 가지고 질문과 답을 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교회 앞에서 살 것인가, 자신을 두고 답을 내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내셔야 합니다.

<본론>

1.너희로 우리와 사귀게 하려 함이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요일1:1-2)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기 전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일입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생명이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에 관하여 증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열두 사도 중에 요한이 가장 사랑받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사도가 됩니다. 그 사랑받은 요한이 자기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실, 공생애 기간에 있던 사실,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사실을 자기가 직접 경험한 바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분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창조사역에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그 분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약속대로, 방주의 약속대로, 유월절 양의 피의 약속대로, 임마누엘의 약속대로, 이 땅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요일1:3)

너희가 하나님과 사귀게 회복되도록 이 글을 쓴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사귀게 회복됩니다. 신앙생활은 사귀는 누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요일1:4)

그래서 누림은 기쁨과 감사의 누림입니다. 여기에 결론이 과거의 약속 성취에 대한 증거입니다. 요한이 이걸 우리에게 전달하는 이유가 무엇이나, 과거의 약속이 성취됐고 자기는 그 성취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증인, 아버지와 그의 아들과 더불어 누리는 누림의 증인,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실의 증인,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듣고 보고 만지고 그 생명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았던 요한의 증언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귀는 사귀는 영원한 생명의 사귀이라는 사실을 보셔야 합니다. 이걸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사귀입니다.

2.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요일1:5)

무슨 빛입니까?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입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빛에는 어둠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등불이나 태양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게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요일1:6)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귀다고 하면서 어둠에서 행한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사귀다고 하면서 자꾸 과거로 돌아간다면 구원 받은 게 아니라 말입니다. 거짓말이란 것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게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1:7)

다시한번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게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귀는 조건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말미암아 사귀 수 있는 비밀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자만이 하나님과 사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요일1:8)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가 나의 화목제물이 되어졌을 때는 죄가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1:9)

내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잘못했다고 자백하면 그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인 것입니다. 오늘 정말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실수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정말 그 그리스도가 나의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함이 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구나. 오늘 이 약속 붙잡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요일1:10)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떠난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롬3:23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자기 죄를 부인하는 사람은 말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를 여러분이 질문하고 답을 얻었다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사귀는 것만 있는 대언자가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놓친다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육도 살고 영도 살고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대언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피곤하다가도 말씀을 대언으로 받고 영육이 치유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3.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요일2:1)

내가 왜 이 말씀을 쓰느냐?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범죄하거나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사귀는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쓰지만 만일 실수해서 죄를 범해도 괜찮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닙니다. 때론 내가 실수로, 속아서 범죄한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요일2:2)

예수 믿고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 돌아오는 모든 사람의 죄를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서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요일2:3-4)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요일2:5)

말씀의 흐름을 타는 자,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방향 속에 있는 자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말씀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요일2:6)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성입니다. 어떤 실수를 해도 지금 그 분 앞에 나오면 사귀는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

▶지난주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과거는 어떤 과거입니까? 멸망의 과거, 죄의 과거, 하나님 떠난 과거였습니다.

▶그 과거의 나에게 말씀의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고 현장에 전달됨과 동시에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대언자가 맞다면 그 그리스도는 화목제물로서 하나님과 사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일에 증인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언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고 아무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빛교회

ζωη φως ἐκκλησία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0-147호

담임목사 : 곽동호

전 화 : 010-5205-4079

E - mail : dhkwak0224@hanmail.net

인생복음상담 : 070-4406-4079